

제4부 토론과 갈등

- 예비 교사의 정신건강
- 아동심리치료의 통합 접근
- 사범대학에서의 교사 양성
- 자아인식 수용검사 개발
- 그림 직업흥미검사 개발
- 발달장애 아동의 해석학적 진단
- 행동치료 분석과 토론수업

예비 교사의 정신건강

사범계열 학생의 교직 적성은 여러 대학에서 논의되어온 과제이다. 1991년부터 각 대학은 교직 적성이 준비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그러나 교직 적성을 가진 학생을 선별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입학시험에 따른 문제가 대학마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 대학마다 입학 기준도 차이가 있고 방법도 다르게 연구 중이다. 교직 적성을 밝히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더구나 입학 학생들 중 정신이 건강한 교사가 될 사람을 가려낸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궁색하기 짝이 없다.

강남대학교에서 열린 사범계 적성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자는 정신건강의 개념과 그 기준에 관한 내용 또는 건강한 교사를 선발하는 문제는 계속되는 연구과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발표자는 예비 교사를 선별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늘 주제에 결론을 내기 어려운 발표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보충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토론을 하고자 한다.

대학에 사범계 지원자들은 대부분 교사에 관심이 많거나 적은 학생들까지 다양하다. 그러한 이유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과 경제적인 변화 때문에 나타난다. 그런데도 대학에서는 적성을 가진 학생을 선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한다.

신문에서는 얼마 전에 학교의 교사 직업이 유망한 직업군에 포함되더

니 갑자기 교직의 정년을 단축하면서 이직하는 교사들이 많아졌고, 교사 임용고시에 정원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50년간 교직이 인기직업에 있다가 1970년 중반부터 1980년 초까지 교직을 자랑스럽지 못하게 생각하여 떠난 사람이 많이 있다. 1970년 퇴직 교원이 7.0%에서 1987년 1.2%로 낮아졌다. 그러나 1998년부터 교직을 떠난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여파로 교사모집이나 교직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교사 질까지 떨어트려 편법으로 교사를 모집하는 실정이다. 사실 학교에서 자리를 떠난 교사는 이 외에도 사망, 정년, 결혼, 기타 이유를 제외하면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와 상당한 부분에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징계나 질병, 기타 이유가 더 많기 때문이다.

교직의 선호가 갑자기 혼란기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었다. 이런 변화에서 오늘 세미나 발표의 의미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교직에서 어떤 학생을 선별하는지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강조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교직을 예비 교사의 근무기간(인턴 제도)을 두어 시험적으로 시행해 보자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하여간 교직 적성 고사에서 한두 사람이 몇십 분 면접하여 건강한 예비교사를 선별하는 방법은 큰 부담이 된다.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사범대학에서 정신건강이 좋은 학생을 선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학 입시에서 충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단 몇 가지 기준으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가려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사의 정신건강의 기준이나 준거들이 있다고 하여도 얼마 만큼 정신을 양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하기 어렵다. 몇 가지 도구들이 정신건강을 양적으로 설명하는 데 척도나 표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마다 위험한 선택이 도사

리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단점을 거부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 것이 검사이다. 그리고 그 도구가 교직에서 정신건강을 가려내는 것과의 상관적 연구나 경험이 없다는 데 더 웅색하다.

검사에서 얻은 점수가 교사의 정신건강을 가려내거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신건강을 담보로 교직을 선택하도록 지도한다면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질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는 일이 더 요구될지 모른다.

교사의 정신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관점에서 토론은 중요하다. 적성이나 정신건강의 문제를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비하여 사범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소홀히 한다.

토론자는 그간 대학에서 교직에 지원하는 학생을 면접하여 선발하고 그 학생이 입학하여 4년간 학업을 마치고 현장에서 적응하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사범계 입학사정에서 과제가 혼란스런 일을 경험했다.

어느 해인가 면접에서 의사 표현도 잘하고 행동이 적극적이던 한 여학생이 입학하여 졸업을 얼마 앞두고 장차 자신은 교사 적응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학생이 있었는가 하면, 면접에서 얼굴도 붉어지면서 수줍어하던 학생이 졸업을 하고 교직에서는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아동과 아주 즐겁게 교직을 수행하는 졸업생도 있었다.

사실 임상에서 만난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의 정신건강에서 믿을 만한 지표는 어린 시절을 보낸 경험과 타고난 성품에 따라 인격형성이 크게 좌우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다.

오늘 주제 발표자는 정신건강의 문제로 특별히 교사를 만난 경험이 있는가? 그들이 학교에서 어떤 문제로 고민을 호소하는지 아는가? 이러한

질문에 경험이 없거나 가정하고 연구한 경험이 없으면 발표하기에 어려운 문제이다.

사실 그간 교사의 비행, 교사의 정신위생의 문제는 철저히 보호되어 왔다. 그러한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예방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다.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가 교직을 수행하는 데 정말 문제가 되는 교사는 퇴출이 가능하고, 계약제나 시간제 직업으로 빠르게 바뀌는 환경에서 평생교직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현장에 가면 교사의 정신건강은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많은 아동들에게 교사의 태도가 반영되거나 자연스럽게 투사되고, 피드백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울한 교사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떨어지며 교수활동에서 피드백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자는 교사와 아동 간에 상호작용에 교사의 정신건강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작용한다는 생각에 예비적 연구를 한 적이 있다.

그 몇 가지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범대학은 고등학교와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의 누가 기록이 정신건강을 판단할 참고자료를 얻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아니면 더욱더 많은 정보를 얻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유치원 때부터 개인의 생활기록이 있으면 더 좋다. 또 하나는 대학원에서 교직을 결정하는 교사의 양성을 선택하면 이 문제는 줄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가장 짧은 시간에 정신건강 문제를 선별하여 결정적 영향력을 주는 평가는 사실상 성공하기 어렵다.

언젠가 시험에 교사의 적성에 비추어 자기 단점을 하나 적게 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진술하게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신이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가장 많이 제기했다.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사범계열 입학 후에도 갈등이 계속된다. 오직 자기의 적성은 간호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직이 부담스럽고 흥미에 맞지 않아 졸업 후에도 다른 곳에 진출하여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 학생의 진로를 위해서는 과감한 전환이 필요할지 모른다.

둘째,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심리검사의 기준이 되는 도구를 사용해도 자기가 평가하여 자기가 이해하고 결정할 기회를 대학 입학 후에 충분히 주어야 한다. 그러한 일은 학생지도연구소에서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전공 선택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자기이해가 성숙하도록 지원한다. 대학생이 늦은 감이 있으나 대학을 마치고 자기 진로를 다시 결정하는 학생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인가.

아주 이상적이지만 이제 교육환경이 바뀌어 가니 기대해 볼 만한 생각이 아닌가? 즉 전공의 선택이나 전과, 전학이 개방되고 학생에게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는 변화에서 전공 선택의 실패율이 적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전문가 간에 일치된 견해이다.

대학입시에서 4년간 전공이 결정되던 시대와는 다르다. 시간이 좀 지나면 한두 번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인정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정관념은 달라져야 한다.

특수교육전공의 경우이기도 하지만 지난 15년간 650명의 졸업생 중에 53명의 학생은 탈락하거나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하고 수료했다. 이들은 여타의 이유로 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졸업했다. 이들 학생들이 정신건강에 염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학생들이다. 우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대부분은 너무 한곳에 고착되어 합리적인 자기관리에 실패한 학생이다. 또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대학에서 선별하기보다는 중학교



교육에서 선별되면 더욱 좋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적성에 관한 상담이나 평가의 기회가 부족하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자기이해 문제에 인식이 낮아 자신을 탐색할 기회가 없다.

정신건강의 이해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상담하는 기회를 가지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학생은 의도적으로 자기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 대학에 와서도 긴 시간을 방황하고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고등학교에서 일차로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 기회를 가진다면 대학에서 전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나은 과제는 질적인 적성지도 관리를 초등학교부터 연계하는 것이다.

토론자가 지난 10여 년 간 교직 적성 시험에 참여한 경험에 비추어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1997).